

남양주도시공사 인권경영선언문 선포식

1 추진개요

- 추진일시: 2023. 12. 15.(금) 15:00
- 장 소: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비전교육실
- 참여인원: 사장 등 임직원 27명
- 주요내용: 인권경영 선언문 개정에 따른 선포식 추진

2 관련사진



남양주도시공사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고객중심 경영혁신, 소통경영」을 실현하는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UN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연령, 지역, 장애,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고객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일동

| 기획 | 사실/기고 | 사람들 | 독자공간

경기신문

남양주도시공사,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 개최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 등록 2023.12.17 14:42:38



▲ 남양주도시공사는 이계문 사장과 간부직원들이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남양주도시공사 제공)

남양주도시공사는 이계문 사장과 간부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 선언문 선포식을 개최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경영 선언문에는 ▲인권경영에 대한 의지 ▲차별금지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과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환경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등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도시공사는 박기혁 회장(여성과 장애인 권익성장센터), 우재원 노무사(노무법인 신승HR)를 초빙해 간부들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과 상호존중(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했다.

이계문 사장은 "간부직원들의 적극적인 인권 실천의지와 솔선수범 하는 자세가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고객중심 경영혁신, 소통경영을 통해 사업 전영역에서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